

장기요양서비스의 경제성 분석

김은영(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전경자(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본 연구는 장기요양서비스로 정착되어가고 있는 가정간호, 요양원 및 요양병원 서비스에 관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함으로써, 희소한 보건의료자원을 이용하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자료수집은 2개의 가정간호사업소와 4개의 유료요양원, 1개의 노인전문요양병원 등 총 7기관의 171명(각각 49명, 50명, 72명)의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관점은 사회적 관점으로, 비용은 환자와 가족, 제공자, 보험자, 기타부문에서 각각 부담하는 모든 비용의 합으로 산정하였다. 효과는 3개월후 대상자의 신체적, 인지적 기능수준의 향상으로 보았으며, 효과한단위당 비용으로 환산하여 상대적인 비용효과비를 비교하였다.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간의 비용효과비를 비교한 결과, ADL, CPS, 자신표현능력 등의 향상을 효과로 보았을 때는 요양원, 가정간호, 요양병원의 순위로 비용효과적이었고, 요실금, 변실금, 타인이해능력 등에서는 가정간호, 요양원, 요양병원의 순위로 효율적으로 나타났다.

2. 각 장기요양기관별로 산출된 비용효과비에 대하여, 가족간병비 산정시 적용한 시장임금을 달리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한비용인 전직종 근로자의 비용을 적용하면, 가정간호가 가장 비효율적으로 나타나지만, 하한비용인 단순노무직의 평균임금의 50%를 적용할 경우에는 가정간호가 가장 비용효과적인 서비스로 나타났다.

3. 장기요양서비스 유형이 비용효과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구학적 특성,

가족특성, 질병특성, 건강관리특성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장기요양서비스 유형과 대상자의 기능수준 및 이들간의 교호작용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4. 다중회귀모형에 다른 독립변수들은 각각의 평균치를 삽입하여 통제한 후, ADL 점수와 CPS 점수 각각과 종속변수인 비용효과비간의 관계만을 방정식으로 나타낸 결과, 장기요양서비스 유형별로 절편과 기울기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능수준에 따라 비용효과비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5. 가정간호와 요양원의 두 회귀선은 ADL 점수 8.7점에서, CPS 점수 3.1점에서 교차하였다. 즉, 신체적·인지적 의존정도가 낮은 경우($ADL \geq 8.7$, $CPS \geq 3.1$)에는 가정간호가 효율적이지만, 둘 중에 하나라도 의존정도가 심한 경우($ADL < 8.7$, $CPS < 3.1$)에는 요양원이 가정간호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환자의 기능수준에 따라 가정간호, 요양원, 요양병원의 경제적 가치가 달라지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기능적 의존정도가 적은 경우에는 가정간호서비스를, 기능적 의존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요양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환자 기능수준별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도화할 것을 제안한다.